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방안 모색 연구*

주경진 (성균관대학교) 이경량 (세종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ugust 09, 2022
Revised: October 10, 2022
Accepted: October 30, 2022

Kyung Jin Joo (1st author)
Visiting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Tel: (02) 760-0246
E-mail: hermesjoo@skku.edu

Kyoung Rang Lee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jong University
Tel: (02) 3408-3118
E-mail: kranglee@sejong.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aculty research fund of Sejong University in 2021.

ABSTRACT

Joo, Kyung Jin and Kyoung Rang Lee. 2022. An exploratory study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post COVID-19 er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220-1235.

This study was planned to find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Korean English learner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post COVID-19 era. Fifty-two university students (22 students in A university and 30 students in B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various factors were measured, including their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self-efficacy,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and self-evaluation on their speaking and communicative abilities in English and Korean. The participants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in every measurement, compared to their high academic performances; for example, they showed low communicative competencies with low self-efficacy and did not use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requently. While both university students showed similar results in almost all measurement, som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A and B university students. Moreover, the self-rated scores of their English communicative abiliti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ose of Korean communicative and speaking abilities, as well as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while their belief in their own abilities (i.e., self-efficacy) influenced their performances in speaking in Korean, not in English. The detailed results and discussions are given, as ar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1. 서론

코로나가 지나간 교육의 현장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일부 대학 또는 대학의 일부에서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온라인 학습 방식이 초·중·고 및 대학교와 사립 학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 기관으로 확장되어 활용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간과 장소의 탄력적 운용이 장점인 온라인 수업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어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장소의 탄력성이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모든 과목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학업의 양이 누적되어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수업 운영 결과(KERIS), 향후 온라인수업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 지원이라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강후동 2021, 유경애 2020).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문제점으로 학습부진 학습자 증가와 기초학력 저하, 특히 부모의 경제력 및 자녀교육 관심도 등에 따라 계층별 교육격차가 심화된 것(최성광, 최미정 2021)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과목에서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2019년에 비해 2020년 3수준(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영어에서 가장 많이 저하되었다(국어 7.5 하락(82.9%→75.4%), 수학 3.6 하락(61.3%→57.7%), 영어 8.7 하락(72.6%→63.9%)됨).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읽기 능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 영어 읽기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통계센터(NCES) 주관 국가학업성취도평가(NAEP) 등을 실시하여 ‘읽기’와 수학 등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파악해왔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시험 프로그램 업체인 르네상스러닝이 실시한 2020년 가을 시험 결과에 따르면 7,800개 학교 300만명 대상으로 한 읽기 시험이 코로나 이전보다 4-7주 정도 저하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온라인 학습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으며(Hanushek and Woessmann 2020), 빈곤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온라인수업이 비효율적이며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어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2015)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연방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읽기회복(Reading Recovery[®]), 읽기180(Read 180)[®]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ducation First(EF)라는 스웨덴 교육기업에 따르면 영어능력은 여전히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기술의 발달로 나라간의 경계가 거의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 소통과 협업에 필수적이다. EF가 비영어권 100여개 국가와 해당 국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능숙도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영어능력지수(English Proficiency Index, EPI)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어는 37위였으며 안타깝게도 진단을 시작한 2011년부터 13위, 21위, 24위, 27위, 27위, 27위, 30위,

31위, 37위, 32위, 3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더불어 모든 교육의 목표를 능력(abilities) 향상에서 역량(competencies) 함양으로 바꾸고 있다. OECD(2005)는 “역량을 단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특정 맥락에서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이용하고 동원하여 더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이란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IT 기술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p. 4)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학습전략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e.g., Kaylani 1996, Lai 2009,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 그러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런 영어학습전략과 학생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자기효능감)과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자기 평가)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똑 같은 전략을 가르쳐주어도 어떤 학생들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배운 전략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는 일이 우선은 중요하고 이 때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 본인이 무언가를 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의지를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Bandura 1997). 또한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평가해보는 자기 평가가 실제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Lee and Oxford 2008). 영어읽기전략을 쓸 수 있다고 믿을수록(자기효능감) 영어읽기전략을 더 많이 쓰고, 영어읽기 전략을 더 쓸수록 영어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Lee 2010)는 있지만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영어학습전략 및 스스로의 말하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자기 평가한 결과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2. 문헌 연구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행동을 하며 평가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강후동 2021, Knowles 1975), 이러한 학습 수행 행동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학습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행동은 영어학습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Oxford 1990). 또한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 행동을 스스로 조작하고 실행해낼 수 있다고 개인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라고 하며, 실제로 학습자가 하는 행동인 학습전략과 같은 인지적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Bandura 1986, Multon, Brown, and Lent 1991).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목 또는 분야의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해당 분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서 연구되어 왔다. 초기에는 컴퓨터 이용과 관련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컴퓨터 이용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업 만족도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은주, 박인우 2012). 그리고 수학(Pajares 1996), 간호(주영주 2020, 차지은, 강현주 2020), 이러닝(Kiliç-Cakmak 2010)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다가 영어학습(Lee 2010, Wong 2005) 분야에서도 영어학습전략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74명의 말레이시아 예비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영어학습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Wong 2005), 자기효능감이 높은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학습전략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어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도(5학년, 8학년, 11학년)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관계를 볼 수 있었고(Zimmerman and Martinez-Pons 1990), 자기효능감이 높아서 쓰기 전략을 더 많이 활용했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쓰기능력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알 수도 있었다(Schunk and Swarts 1993).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시도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영 2003, Jinks and Morgan 1999, Magogwe and Oliver 2007).

상기한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과목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특히 영어는 상호 대면 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강조하는 과목이므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할 때 교수자는 물론이고 학습자들도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제스처, 표정 등)이 표현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어떤 요소들이 학업 및 교수 성공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후동 2021, 김한나, 김성원 2021, 박부남 2021, 유경애 2020, 이보경 2020).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영어 자기효능감과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김정현 2021). 또한 온라인으로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비교한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다(유경애 2020).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동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계획, 영어에 대한 열정, 영어 학습자로서 본인에 대한 평가와 믿음 등 학습자 본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강후동 2021).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또한 영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요소가 증가된 요즘의 교육 환경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영어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요한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어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도, 온라인 수업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본인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의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대학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참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 등), 자기 평가(말하기능력, 의사소통능력, 선호도 등) 결과가 어떠한가?

연구 질문 2.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2년째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의사소통역량, 영어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영어의사소통역량과 관련이 있는 영어 말하기, 영어능력, 우리말 말하기, 우리말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을 수업 중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서울 소재 두 대학에서 영어교육 관련 기본 이론을 다루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설문지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 총 55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설문지에만 참여한 3명을 제외한 52명(A대학 22명, B대학 3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A대학에서는 영어교육 관련 기본 이론을 전공으로 수강하고, B대학에서는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를 2년째 경험하고 있고, 두 대학 학생들 모두 첫 해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동영상 위주), 그 다음 해에는 온라인 수업(동영상과 실시간 병행)과 간헐적인 오프라인 수업 방식을 경험하며, 첫 해보다 둘째 해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선호도가 높아져 있던 것이 흥미로워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비슷한 지역의 두 대학에서 같은 영어교육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변천사를 비슷하게 경험한 대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또는 차이점이 있을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김아영, 박인영 2001)를 이용하였다. 총 28개의 항목이 3개의 하위 영역(과제 난이도 선호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R).” 등의 항목이었으며, 여기서도 (R)표시된 항목은 대답의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으로 코딩해서 분석을 하는 항목이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초·중등 및

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석재 외(200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49개의 항목이 5개의 하위 영역(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전환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매우 드물게 - 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내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똑 같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서 다른 표현방식으로 말한다(R).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다(R).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음을 말이나 몸짓으로 드러내 보인다.” 등의 항목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으며, (R)표시된 항목은 대답의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으로 코딩해서 분석을 하는 항목이다.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대답을 하라고 하였으며, 내용이 영어인지 한국어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혼동스러워할 수 있어 자기 평가를 할 때 우리말로서의 의사소통과 영어로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영어학습전략은 Oxford(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Strategies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를 이용하였으며, 총 50개의 항목이 6개의 하위 영역(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 상위 인지전략, 정의전략, 사회전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 플래시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 영어의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영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을 일기에 적는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의 능력과 영어 말하기 능력, 우리말로 의사소통할 때의 능력과 우리말 말하기 능력을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해보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영어학습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스스로의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3.3. 자료 수집 절차

우선 연구자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을 4개 학기 동안 진행해 오면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치했고, 코로나 초기에는 매우 힘들어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향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학기 초에 이를 계획하고 의사소통역량, 영어학습전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도구들을 추려내어 학습자들이 활용할 형태의 구글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뇌와 학습 전략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주차에 수업 중 활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각각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해석하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3.4. 자료 분석 절차

설문 결과는 구글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엑셀로 다운 받아 역코딩 항목(R로 표시)들은 역으로 코딩하여(1은 5로, 2는 4로, 4는 2로, 5는 1로) 데이터 클리닝을 하였다. 각 설문지마다 총 평균을 산출하여 사회적 연구 분야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참여자들 결과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대학의 데이터를 분할하여 같은 방식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 평균의 평균(3.23)을 기준으로 표준편차(0.51) 전후의 값(2.73, 3.74)으로 상중하 그룹을 나누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두 대학 학생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위드코로나 시대의 자기주도적 학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4.1.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자기 평가 현황

우선 두 대학의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평균을 기준으로 상중하 그룹으로 나눈 두 대학의 학생 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 현황

	전체학생	A 대학	B 대학
상	16 (30.8%)	5 (22.7%)	11 (36.7%)
중	28 (53.8%)	15 (68.2%)	13 (43.3%)
하	8 (15.4%)	2 (9.1%)	6 (20.0%)

중간 정도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28명, 53.8%),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30.8%)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보다(15.4%) 많았다. 이는 두 대학 학생들 모두 중고등학교 및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중상위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더 광범위한 비교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중하 분포는 두 대학 모두 동일하였으나, A 대학 학생들이 B 대학 학생들보다 중간 정도의 자기효능감이 훨씬 더 많았으며(A: 68.2%, B: 43.3%), B 대학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반면(A: 22.7%, B: 36.7%),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더 많았다(A: 9.1%, B: 20.0%). 두 대학의 교과목 성격이나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매우 비슷하다고 사료되어 계획한 연구였지만, 두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분포가 달라

매우 흥미로웠다. 이는 A 대학에서는 영어교육 이론 과목을 전공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고, B 대학에서는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해당 내용에 대해 전공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보다 좋은 학점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 해당 과목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중·상위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의 소규모 집중 인터뷰 등 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A 대학 학생들처럼 자기효능감이 중간 수준이 대부분인 경우와, B 대학 학생들처럼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영어 의사소통역량이나 영어학습전략, 영어와 우리말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비교해 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설문으로 조사한 총 평균에서만 B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높았을 뿐,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A대학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첫 번째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 본 결과, A 대학 학생들의 평균($M = 4.32$, $SD = .78$)이 대부분 B 대학 학생들($M = 3.67$, $SD = 1.35$)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A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B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보다 전체적으로 높았던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의 고른 분포보다는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포가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 학습을 할 때 위험감수(risk-taking) 정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Brown 2016)과 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우는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영어를 좋아하는 것(전체: 3.94, 상: 3.94, 중: 4.32, 하: 3.67)에 비해, 본인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다(전체: 3.29, 상: 3.29, 중: 3.41, 하: 3.20). 또 전반적인 영어능력보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고 (전체: 3.00, 상: 3.00, 중: 3.09, 하: 2.93), 영어로 말하는 능력은 더 낮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전체: 2.83, 상: 2.83, 중: 3.00, 하: 2.70)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통해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 할 때는 표정이나 억양 및 작은 제스처로도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몸짓 언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영어 말하기와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낮게 판단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몸짓 언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활용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았던 평가에 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서, 향후 학생들의 선호도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우리말로 의사소통하고 말하는 능력을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어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어서(우리말 의사소통 전체: 3.96, 상: 3.96, 중: 4.14, 하: 3.83, 우리말 말하기 전체: 3.85, 상: 3.85, 중: 3.86, 하: 3.83) 이것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말 말하기능력이나

우리말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함께 잘 비교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의사소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한 직후 영어와 우리말에 대해 모두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의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가 매우 흥미로워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김아영, 박인영 2001, Kaylani 1996, Lai 2009,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에서 학습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어학습전략 총평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전체: 3.23, A 대학: 3.38, B 대학: 3.11)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전체: 3.23, A 대학: 3.24, B 대학: 3.23)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기 중에 한 번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과 사후 실시를 통해 참여학생들의 영어학습전략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을 때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때의 각 항목에 대한 자기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 각 항목 기술통계 현황

	전체 학생			A 대학			B 대학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영어선호도(EE)	3.94	1.18	52	4.32	.78	22	3.67	1.35	30
일반영어능력 자기평가(GE)	3.29	1.05	52	3.41	.67	22	3.20	1.27	30
영어의사소통능력 자기평가(EC)	3.00	1.07	52	3.09	.87	22	2.93	1.20	30
영어말하기능력 자기평가(ES)	2.83	1.15	52	3.00	1.02	22	2.70	1.24	30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평가(KC)	3.96	.71	52	4.14	.56	22	3.83	.79	30
우리말말하기능력 자기평가(KS)	3.85	.80	52	3.86	.83	22	3.83	.79	30
영어학습전략 총평균(Strat)	3.23	.67	52	3.38	.54	22	3.11	.75	30
영어의사소통능력 총평균(EComm)	3.51	.35	52	3.36	.33	22	3.63	.32	30
자기효능감 총평균(SEff)	3.23	.51	52	3.24	.45	22	3.23	.55	30

4.2.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자기 평가 상관관계

표 3의 전체 학생 대상의 상관관계 결과, 표 4의 A 대학 학생들의 상관관계 결과, 표 5의 B 대학 학생들의 상관관계 결과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얼마나 즐기는지 선호도와 일반적 영어능력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전체: $r = .66$, A 대학: $r = .56$, B 대학: $r = .69$)를 보이고 있는데, 강도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상기했듯이 A 대학의 선호도와 일반적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B 대학보다 높았는데, 두 요인의 상관관계는 B 대학이 더 높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두 대학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어도 상관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표 3. 전체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66**	.61**	.59**	.18	.12	.79**	.08	.14
GE	.66**	1	.70**	.72**	.20	.10	.60**	.04	.32*
EC	.61**	.70**	1	.91**	.13	.09	.53**	-.02	.20
ES	.59**	.72**	.91**	1	.04	.01	.51**	-.13	.18
KC	.18	.20	.13	.04	1	.68**	.11	.22	.24
KS	.12	.10	.09	.01	.68**	1	.05	.21	.34*
Strat	.79**	.60**	.53**	.51**	.11	.05	1	.19	.31*
EComm	.08	.04	-.02	-.13	.22	.21	.19	1	.26
SEff	.14	.32*	.20	.18	.24	.34*	.31*	.26	1

*. $p < .05$, **. $p < .01$

우선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학생들은 영어선호도(EE)와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GE),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EC),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ES), 영어 학습전략(Strat)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영어학습전략과 성취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인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Lai 2009,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 영어학습전략을 자주 쓸수록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은 경향이 있고 또는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을수록 영어학습전략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나 의사소통능력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영어학습전략을 의도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학습전략이 이 외에도 자기효능감(SEff)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에 기초하여, 이전 연구들에서 강조했던 대로(김아영, 박인영 2001, Kaylani 1996, Lee 2010)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실제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행동인 영어학습전략 활용이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학습전략은 명시적으로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이경량 2011,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명시적 교수 전략을 세워 현장에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KS)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EComm)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했던 설문 결과보다는, 본인의 말하기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말하기능력과는 달리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참여 학생들이 영어나 우리말로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 하는 것은 다른 능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므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하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에는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을 함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 A 대학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56**	.66**	.60**	.44*	.22	.53*	.20	.04
GE	.56**	1	.51*	.63**	.10	-.07	.50*	.04	.35
EC	.66**	.51*	1	.86**	.27	.08	.54**	.09	.24
ES	.60**	.63**	.86**	1	.08	.00	.54**	-.00	.30
KC	.44*	.10	.27	.08	1	.65**	.30	.48*	-.06
KS	.22	-.07	.08	.00	.66**	1	.07	.42	.44**
Strat	.53*	.50*	.54**	.54**	.30	.07	1	.43*	.55**
EComm	.20	.04	.09	-.00	.48*	.42	.43*	1	.27
SEff	.04	.35	.24	.30	-.06	.44**	.55**	.27	1

*, $p < .05$, **, $p < .01$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A 대학 학생 상관관계 결과는 전체 학생 결과와 거의 같았지만, 영어 학습전략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이 더 많았고(영어 선호도,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 자기효능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도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학습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B 대학 학생 상관관계 결과도 거의 같았으나, 영어 학습전략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없었다.

표 5. B 대학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69**	.60**	.58**	.04	.08	.87**	.22	.18
GE	.69**	1	.76**	.76**	.21	.17	.63**	.11	.32
EC	.60**	.76**	1	.94**	.06	.10	.53**	-.04	.18
ES	.58**	.76**	.94**	1	-.02	.02	.48**	-.13	.12
KC	.04	.21	.06	-.02	1	.73**	-.01	.27	.37*
KS	.08	.17	.10	.02	.73**	1	.04	.10	.55**
Strat	.86**	.63**	.53**	.48**	-.01	.04	1	.23	.21
EComm	.22	.11	-.04	-.13	.27	.10	.23	1	.29
SEff	.18	.32	.18	.12	.37*	.55**	.21	.29	1

*, $p < .05$, **, $p < .01$

자기효능감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표 3, 4, 5),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과 모국어인 우리말 말하기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말하기를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말하기와 의사소통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모국어여도 해당 언어를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말하기와 의사소통 구분 관련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결과(총평균)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 및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A 대학 학생들만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관관계가 없었다. 3장의 연구 도구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이 영어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A 대학 학생들은 우리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 이에 대한 후속 인터뷰 등을 시행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명시적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조했던 항목들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설문 결과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말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을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상기했던 대로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 교육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에 더욱 관심도와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전략이나 자기효능감은 왜 더 낮은 편인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영어 의사소통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본인에 대한 믿음과 자기 평가 등의 관계를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바뀐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서울의 두 대학에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전공과 교양으로 듣는 학생들 총 52명(A대학 22명, B대학 30명)을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수업 내용, 설문 내용, 설문 시기 등을 교수자들이 미리 상의하여 동시 진행하였다. 두 대학의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자기효능감과 영어학습전략 등), 자기 평가(말하기능력, 의사소통능력, 선호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기존에 개발되어 국내 대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중인 측정도구들을 선정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 영어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영어 흥미도, 일반적 영어능력, 영어와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등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자기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구글폼으로 같은 시기에 수업 중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영어학습전략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모국어인 우리말 말하기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말하기를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이 흥미로운 점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말하기와 의사소통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국어여도 해당 언어를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써 후속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영어에도 높은 관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전략이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향후 질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 모색 및 향후 연구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1. 2021학년도 신학기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 지원 위한 e-학습터 화상수업시스템 개통: 학습격차 해소 및 초중등 수업 특성을 반영한 상호작용 기능 대폭 강화(e-학습터 online class system for supporting interactive real-time online classes in 2021: Closing the learning gaps of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and enhancing interactive activities). Retrieved January 21, 2022 from <https://keris.or.kr/main/na/ntt/selectNttInfo.do?mi=1088&nttSn=37253>
- 강정진(Kang, Jung-jin). 2016. 전환적 관점에서 살펴본 역량 중심 초등 영어 교육과정 운영(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ies-bas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with a transformative perspective). 《한국교원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4, 93-117.
- 강후동(Kang, Hoo Dong). 2021. 코로나19 이후의 자기주도적 영어학습에 대한 대학생 인식 연구(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since COVID-19).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33-4, 157-172.
- 교육부(MOE). 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The results of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2020 and response strategies for supporting learning). 서울: 교육부.
- 교육부(MOE). 2015. 영어과 교육과정(National English Curriculum). 서울: 교육부.
- 김아영, 박인영(Kim, Ahyoung and Inyoung Park). 2001.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김정현(Kim, Junghyun). 2021.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 만족도와 영어자기효능감이

-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nd English self-efficacy with online classes on academic performance). 《멀티미디어 언어교육》(*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4, 189-213.
- 김지은(Kim, Ji-Eun). 2021. 영어교육전공의 핵심역량중심 학습 프레임워크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learning framework and curriculum of core competency-based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majo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KCA*) 21-7, 459-468.
- 김하나, 김성원(Kim, Hana and Sung Won Kim). 202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동영상 수업의 강의 만족도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효능감의 매개 효과 연구(The effect of lecture satisfaction for non-face-to-face video lessons on the learning effect and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for COVID-19 in South Korea).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KALCD*) 21-1, 363-387.
- 박부남(Park, Punahm). 2021. 비대면 의사소통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비디오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 중심으로(A study on students'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communicative language classes in non-face-to-face lectures: Focusing on video lecture and real-time lecture).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33-2, 107-129.
- 유경애. (2020). 온라인 교양수업에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교 분석(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in an online general education class). 《교양학연구》(*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 33-58.
- 이경량(Lee, Kyoung Rang). 2011. 영어학습전략 연구 30년 개관(An overview of the research on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or 30 years).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23-1, 241-260.
- 이보경(Lee, Bo Kyung). 202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양 영어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A study on learners' response to online college English class as general edu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한국교양교육학회》(*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4, 97-112.
-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영(Rhee, Seok-Chae, Y. Chang, H. Lee and K. Park). 2003. 생애능력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주, 박인우(Lee, Eunjoo and Innwoo Park). 2012.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만족도에 대한 컴퓨터 자기효능감, 교수실재감, 학습자 참여의 예측관계 분석(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computer self-efficacy, teaching presence and learner participa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online realtime instruction). 《열린교육연구》(*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 195-219.
- 이주연(Lee, Juyeon).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육의 방향(Directions for the English education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APEE Summer School, 9-16.

- 주영주(Ju, Yeong Ju). 2020.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셀프리더십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4, 745-762.
- 차지은, 강현주(Cha, Ji Eun and Hyun-Ju Kang). 2020.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epar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433-446.
- 최성광, 최미정(Choi, S. and M. Choi). 2021.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현장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Focus group interview (FGI) study on ‘K-Edu’ Experienced by School Teachers In COVID19).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2, 179-189.
- 최승현, 황혜정, 남금천(Choi, Seung Hyun, Hye Jeang Hwang and Geum-Cheon Nam). 2012. 학습자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수학교육 실태 탐색: 뉴질랜드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Investigation on the reality of school mathematics based on the learner’s competencies).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Journal of KSMS*) 15-2, 215-23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Hanushek, E. and Woessmann, L. 2020. The economic impacts of learning loss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25).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21908d74-en>
- Ikeda, M. and O. Takeuchi. 2000. Tasks and strategy use: Empirical implications for questionnaire studies. *JACET Bulletin* 31, 21-32.
- Jinks, J. and V. Morgan. 1999. Children’s perceived academic self-efficacy: An inventory scale. *The Clearing House* 72-4, 224-230.
- Kaylani, C. 1996. The influence of gender and motivation on EFL learning strategy use in Jordan.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75-88. Mano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iliç-Cakmak, E. 2010.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al factors predicting information literacy self-efficacy of e-learners.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6-2, 192-208.
- Lai, Y. 2009.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and English proficiency of university freshmen in Taiwan. *TESOL Quarterly* 43-2, 255-280.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Follet Publishing Company.
- Lee, Kyoung Rang and R. L. Oxford. 2008. Understanding EFL learners’ strategy use and

- strategy awareness. *Asian EFL Journal* 10-1, 7-32.
- Lee, Kyoung Rang. 2010. Improving self-efficacy and reading performance through individualiz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1-3, 40-54.
- Magogwe, J. M. and R. Olive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proficiency, age and self-efficacy beliefs: A study of language learners in Botswana. *System* 35, 338-352.
- Multon, K. D., S. D. Brown and R. W. Lent. 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0-38.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ublished online*. Retrieved January 30, 2022 from <https://www.oecd.org/pisa/35070367>. pdf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Heinle and Heinle.
- Park, Gipyoo. 1994.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y Do Adults Need Th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eok, Jin-Yee. 2010.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EFL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1-1, 167-190.
- Wong, M. S. 2005.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self-efficac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in Malaysia. *RELC Journal* 36-3, 245-269.
- Zimmerman, B. J. and M. Martinez-Pons.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Secondary, Tertiary